

# '보이지 않는' 콘텐츠를 찾아라 새로운 검색엔진 '인비지블 웹'

## 무관한 콘텐츠나 검색 순위 등의 단점 불구 가능성 엿보여

마이클 단

많은 검색 엔진들이 등장하고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완벽이라는 칭송을 듣기에는 미흡하다. 여기에 새로운 검색 엔진을 소개하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콘텐츠가 검색엔진으로 가능하다는 인비지블웹닷컴(InvisibleWeb.com)이다. 하지만 이 역시 완벽이라는 칭송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것들이 검색되거나 전혀 무관한 것들이 검색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기존 검색 엔진보다 단점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검색엔진으로는 검색 불가능한 것들이 검색된다는 점에서 부목을 받고 있으며 단점을 보완한다면 좋은 검색엔진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인비**지블웹닷컴(InvisibleWeb.com)이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내놓았는데 아직은 그 잠재력이 완전히 발휘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 아이디어란 웹상의 '보이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 검색 및 브라우징이 가능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들리면서도 매우 훌륭한 발상이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인비지블, invisible)'이란 말은 AltaVista나 Northern Light같은 종래의 공개 검색엔진들을 사용해서는 검색할 수 없는 콘텐츠를 뜻한다. 검색자들을 '보이지 않는 콘텐츠'로 안내하는 인비지블웹닷컴은 웹 검색용 인기 도구들, 다시 말해 검색 엔진, 검색 가능한 디렉토리, 수평 포털(주제-전용 디렉토리)에 대한 유용하고도 필요한 추가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잠깐만. 기존의 검색 도구들에 진정 추가할 것이 필요한 것일까? 검색엔진과 디렉토리가 수백에 달하는 데도 검색할 수 있는 장소가 진정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일까?

그렇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하다. AltaVista, Northern Light, Google, Fast Search, HotBot, Excite, DirectHit 등과 같은 인기 있는 검색엔진들이 안고 있는 중요

한 단점 중 하나는 그러한 검색엔진들이 웹의 상당부분을 인덱싱하지 못함으로 인해 독자가 검색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대개 인덱싱이 어려운 이러한 콘텐츠는 PDF 파일, 플래쉬 파일, 웹 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나 기존의 검색엔진들의 인덱싱 방법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단지 대규모 검색 엔진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검색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검색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웹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검색이 가능한데 단지 대규모 공개 검색엔진들을 통해서만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독자는 이러한 콘텐츠를 그것을 호스팅하고 있는 개개의 웹사이트들을 통해서만 검색할 수 있다. 더욱이 PDF 및 플래쉬 콘텐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검색엔진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다시 한 번 보통은 그것을 호스팅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러한 콘텐츠를 검색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웹상에는 대규모 공개 검색엔진들을 통해

서는 검색되지 않은 고품질의 검색 가능한 수많은 정보들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콘텐츠는 이들 검색 엔진들(그리고 그러한 엔진들에만 의존하는 누구에게 라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 인비지블웹

인비지블웹닷컴은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비지블웹은 종래의 검색 엔진들로는 인덱싱할 수 없는 콘텐츠를 가지는 검색 가능한 정보 리소스들로 구성된다. 이들에는 데이터베이스, 보관된 자료(archived material), 계산기 및 사전 같은 상호작용 도구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리소스들은 수천 개의 개별 웹사이트들 깊숙이 파묻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검색엔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

글쎄 마지막 문장이 좀 애매모호할지도 모르나 여기 좋은 해답이 있다. 인비지블웹닷컴은 웹상의 '보이지 않는' 콘텐츠에 대한 포괄적이며 검색 가능한 디렉토리가 되고자 하고 있으며 바로 이순간 웹은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비지블웹닷컴이 독자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실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차선책으로 독자를 그런 콘텐츠에 안내하고자 한다. 잘만 된다면 이는 대규모 공개 검색 엔진들에 대한 완벽한 추가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독자는 정기적으로 이 둘 모두를, 다시 말해 '보이는' 웹 콘텐츠의 경우에는 공개 검색엔진들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인비지블웹닷컴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의 위력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독자가 특정의 특허품을 찾아보고자 했다고 가정해보자. 독자는 축구공처럼 생긴 슬리퍼라는 기막힌 신제품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으며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 미국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만일 독자가 대규모 공개 검색엔진 중 하나를 이용해서 '축구공 슬리퍼 특허'를 검색한다면(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축구공 슬리퍼에 대한 실제 미국 특허 전부(또는 어떤 것이라도)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만일 찾는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되거나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축구공 슬리퍼 특허'라는 검색어는 아주 구체적이다. 아마도 너무 구체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특허'를 찾았다면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특허 정보, 즉 일반 특허법 원리에서부터 특허 계

류중인 제품에 대해 기업들이 발표한 보도자료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독자가 원하는 것은 단지 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것이다.

인비지블웹닷컴에서 '특허'를 찾아보면 3가지 검색 가능한 특허 데이터베이스가 처음 10개 검색결과에 들어 있다(하나는 캐나다 데이터베이스이고 또 하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이나 나머지 하나는 미국 특허 및 상표국의 무료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이며 더구나 11번째 검색결과는 중요 특허 데이터베이스이다). 이제 독자는 본론에 접어들었다. USPTO에 대한 링크를 클릭해서 검색상자에 '축구공'과 '슬리퍼'를 입력하면 정말로 발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러한 슬리퍼들에 대한 특허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웹 검색이 이렇게 쉬울 수만 있다면 인비지블웹닷컴에서 '변호사'를 검색하면 도시, 주, 특정 지역별로 변호사들을 찾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나타난다. '영화'를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는 영화, 영화정보, 영화기록에 대한 무수한 데이터베이스들로의 링크들을 얻게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검색하면 소프트웨어 컬렉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얻게 된다.

### 인터페이스 여행

인비지블웹닷컴은 검색상자, 핫 리스트, 브라우징 가능한 디렉토리/검색결과 영역, 이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일반 정보용으로 화면 위에 탭들이 있다.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나 전문가나 모두 이 사이트를 항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세 가지 주요 섹션들 각각에는 탭이 달린 인터페이스와 도움말, 업, 다운, 최소/최대 버튼이 있다.

#### 핫 리스트

핫 리스트는 홈페이지 좌측에 있으며 범주별 인기 사이트들에 대한 상대적 소규모의 링크 목록이다. 컴퓨터를 클릭하면 애플, 델, 게이트웨이, 인텔 등에 대한 링크를 얻을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클릭하면 Village, SeniorNet, TalkCity에 대한 링크를 얻게 된다. 핫 리스트는 북마크 리스트와 흡사하다. 이는 이 사이트의 이상하고도 다소 혼동을 주는 특징이기도 하다.

### 디렉토리/검색 결과

이 사이트의 중심에는 목록을 훑어보거나 검색결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처음에 이 부분은 공개 디렉토리 프로젝트(www.dmoz.org)나 그와 유사한 디렉토리들의 외관과 느낌을 가진다. 인비지블웹닷컴의 '보이지 않는' 웹 콘텐츠 목록을 꿰뚫기 위해 총괄 카테고리(broad category)를 클릭해보라. 핫 리스트와는 달리 여기서는 '컴퓨터'를 클릭하면 25개의 서브카테고리가 나타난다. '소프트웨어' 서브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추가 서브카테고리들과, 인비지블웹닷컴이 Computer/Software:Winzip.com 바로 아래 위치시켜놓은 단일 목록이 나타난다. (윈집닷컴(Winzip.com)이 '보이지 않는' 웹 콘텐츠와는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런 독자가 옳다. 윈집닷컴은 그와는 다르다)

## 검색

검색상자는 홈페이지 좌측상단에 있으며 두 가지 검색 옵션, 빠른 검색(Quick Search)과 고급 검색(Advanced Search)이 주어진다. 빠른 검색이 기본설정이며 이는 상자에 입력된 모든 단어(디폴트 AND 연산자)에 대한 검색을 실행한다. 고급 모드는 '모든 단어' '임의 단어' '정확한 구(exact phrase)' '불논리 연산(Boolean)'과 같은 옵션들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옵션들은 꼭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검색엔진 및 디렉토리들과 비교할 때 인비지블웹닷컴은 아주 작으며 그래서 간단한 검색이 최상이다.

일단 목록 디렉토리를 훑어 내려가면 이 부분 상단에 3개의 탭이 보일 것이다. 인비지블웹(InvisibleWeb), 서브 카테고리(Sub Category), 사이트(Site)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트리구조의 디렉토리 속에서 독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항해 보조도구들이다. 만일 독자가 검색 결과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면 '서브 카테고리' 탭은 '검색 결과'라고 쓰여진 탭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인비지블웹닷컴의 강점 중 하나는 그 디렉토리에 있는 목록들에 대한 리뷰이다. 각각의 리뷰들은 해당 사이트를 간략히 설명해주고 그 사이트가 등록이나 요금 또는 그런 식의 다른 세부사항들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 단점

인비지블웹닷컴이 웹 검색 도구들에 대한 완벽한 추가물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 또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 초점의 결여

인비지블웹닷컴은 진행하다보면 어디쯤에서 그 초점을 잃는다. 현재 인비지블웹닷컴은 "종래의 검색 엔진들이 인덱싱할 수 없는 콘텐츠를 가지는 검색 가능한 정보 리소스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인비지블웹닷컴을 구성하는 전부라면, 이는 검색자들에게는 매우 가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디렉토리의 많은 부분이 단순한 사이트 검색 엔진들의 링크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콘텐츠와 보이는 일반적인 웹사이트 콘텐츠를 혼동해 왔다. 인비지블웹닷컴 디렉토리에 포함되는 유일한 기준이 자료가 외부 소스로부터 인덱싱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자료가 검색될 수 있는지 여부인 것 같아 보인다. 사실 인비지블웹닷컴 디렉토리에 나열되어 있는(거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리소스들이 종래의 검색 엔진들에 의해 인덱싱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초점의 결여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거의 치명적인 흠이 된다. 이는 콘텐츠 검색자들이 인비지블웹닷컴을 찾게 되는 이유인 데이터베이스(및 기타 보이지 않는) 콘텐츠를 보통의 평범한 보이는 콘텐츠에 대한 수많은 링크들에 가려 분명치 않게 만든다. 이는 인비지블웹닷컴을 Yahoo!, LookSmart, Snap과 같은 검색 가능한 디렉토리들과 직접 경쟁에 들게 한다. 이 때문에 Yahoo!나 LookSmart, 또는 Google같은 관련성 순위에 대한 뛰어난 알고리즘을 갖춘 검색엔진의 서비스 품질을 인비지블웹닷컴이 능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다.

예를 들어, 'HTML'을 검색하면 첫 번째 2개 검색결과들은 HTML 태그 확인 도구들에 관한 것들이고 나머지는 HTML 사이트에 대한 소개이다. 사실 이 리소스들은 HTML이라는 용어로 검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할 수도 있으나 이들 사이트들은 '보이지 않는' 웹 콘텐츠는 절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예들이 있다. 사이트를 브라우징하거나 몇 가지 샘플 검색을 실행시켜보면 지금 저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포함여부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사이트가 검색 형식을 가지는지 여부인 듯하다.

문제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핫 리스트 기능이 NBC.com, Disney.com, iVillage.com과 같은 사이트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이트들이 검색 엔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인가?

인비지블웹닷컴이 '보이는' 콘텐츠를 더 많이 포함하면 할 수록 핵심 검색자를 위한 특별 도구로서의 가치는 점점 더 상실되고 실속 있는 디렉토리들과 잘 만들어진 검색엔진들에 대한 대응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상호 참조의 결여**

인비지블웹닷컴의 검색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상호참조가 확실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서들은 이점에 동의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인비지블웹닷컴의 검색에 특히 실망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검색을 할 때 각 목록의 간략한 개관들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검색하게 된다. 이는 또한 키워드 필드(검색은 되지만 표시되지는 않는 것)에서 검색을 실행함으로써 크게 향상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 뜻의 용어 및 개념들과 더불어 대체 스펠링이 나열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호텔'을 검색하면 82개의 검색결과가 나온다. '호텔룸(hotelrooms)'(인용부호없이)을 검색하면 20개의 검색결과가 나온다(구(句)로 검색하면 "호텔 룸(hotel rooms)"은 2개의 검색결과가 나온다). '영화(movies)'는 115개의 검색결과가 나오는 반면 '영화(films)'는 51개의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항공요금(airfares)'은 9개의 검색결과가 나오는 반면 '항공 요금(air fares)'(구로 검색하면) 22개의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다. 어쨌건 대규모 검색엔진들이나 디렉토리중 어느 하나에서 동일한 검색을 실행해보면 마찬가지로의 불균형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비지블웹닷컴은 비교해보면 1만5,000개도 안되는 목록으로 아주 적다. 웹상의 주요 검색 디렉토리들의 경우 수십만 개 그리고 대규모 검색엔진들의 수억 개에 비교하면 인비지블웹닷컴은 보다 상세한 특징(기능)들을 제공하기에 알맞다. 인비지블웹닷컴이 인간이 검토하여 자신들의 목록 모두를 설명하게 할 작정이라면 왜 그들로 하여금 동의어, 관련 용어, 대체 스펠링에 대한 키워드 필드를 또한 기입하도록 하지 않는 것일까?

**정확성/관련성 부족**

인비지블웹닷컴은 관련성 순위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저자가 'HTML'을 검색해보았는데(총 73개중에서) 상위 10개

검색결과 중에 미국 100년 상호 기금 및 미국 미터산악학 협회 저널 온라인에 대한 링크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지 HTML이라는 용어가 이들 목록의 설명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73개의 검색결과 중 거의 절반이(그 사이트들이 html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곤) HTML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었고 30번째에서 73번째 사이의 검색결과 중 많은 것들이 HTML에 대한 검색과 관련이 깊은 것들이었다. '영화'를 검색하면서 저자는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Internet Movie Database)(인터넷상에서 최상의 영화 정보 사이트임에 거의 틀림없는)가 검색결과 목록의 상위에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처음 10개 검색결과에조차 끼지 못했다(인비지블웹닷컴은 검색결과를 10개 단위로 보여준다). 그 사이트는 115개의 검색결과 중에 29번째였다.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비지블웹닷컴의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포함된다: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IMDB)는 영화팬들을 위한 인터넷상의 가장 포괄적인 리소스이다" 인비지블웹닷컴 순위에서 IMDB에 앞서 14번째에 YPOP 무비메이커가 있었는데 인비지블웹닷컴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YPOP 무비데이터는 요코 위성에서 x-선 망원경으로 찍은 태양의 영화와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과연 영화정보를 검색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다 관련 있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인비지블웹닷컴의 변명에서 저자는 대부분의 검색 가능한 디렉토리들과 마찬가지로 관련성은 검색 결과들을 살펴볼 때보다는 디렉토리를 브라우징할 때 훨씬 더 크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메인 스크린에서 브라우징을 시작하면 거의 모든 카테고리과 서브 카테고리에서 관련성이 높은 목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일반 여행 카테고리에 drugstore.com과 같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임) 여전히 탁월하다 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 관련성보다는 훨씬 낫다. 브라우징가능한 디렉토리에 있는 목록들의 관련성은 사이트들이 알파벳보다는 관련성 순서로 나열될 때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애·영화 부분에서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the Internet Movie Database)는 목록이 알파벳순이라는 이유로 맨 마지막에 나열되고 있으며 'The'로 시작된다는 이유로 시스켈과 에버트(Siskel and Ebert)다음에 나열되어 있다. IMDB는 가급적 처음 5개 사이트에(아니면 적어도 알파벳 목록 I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웹의

규모가 점점 더 방대해짐에 따라 관련성 순위도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 인비지블웹닷컴은 특히 검색 결과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 가능성의 결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이트의 3개 주요 섹션들 각각에는 몇 가지 인터페이스 조종장치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움말, 위, 아래, 최소·최대 버튼이 있다. 도움말 버튼은 독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이는 이 사이트의 아주 짧은 기능이다. 위, 아래 버튼은 어느 한 섹션의 위나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섹션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며(예를 들면 핫리스트아래에 있는 검색상자로 이동) 최소·최대 버튼은 어느 한 섹션의 크기를 최소화 또는 최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의 포함은 이해를 넘어 당혹감을 안겨준다. 저자는 그 누구라도 메인 디렉토리/검색 결과 화면을 최소화시킬 이유를 단 하나라도 생각해낼 수가 없다. 어느 섹션을 최소화시키면 보다 많은 배경 공간이 생길 따름이며, 독자가 기대하는 바대로 다른 섹션들에 대한 공간을 증가시켜 주지는 않는다. 이런 기능들의 유일한 목적은 웹사이트의 개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프로그래밍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러한 목적에도 그리 잘 이바지하지는 못한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초보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만 커진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것들이 사용자의 주문 제작을 허용한다면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주문한 설정들을 저장할 수 있어서 재방문시마다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쉬운 문제들을 넘어서 이 사이트의 기능성은 세부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 부족으로 제한받고 있다. 이 사이트를 쭉 둘러보면서 저자는 수많은 데드 링크들과 기형의 검색 인터페이스를 발견하였는데 자바 애플릿 배너 광고가 정기적으로 떠오르는 것이었다(이는 다목적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아이디어인데 값이 싼 컴퓨터들에는 너무 과중한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저자가 이 사이트를 브라우징했던 컴퓨터중 하나는 이들 광고들중 하나가 로드될 때마다 15초 정도 움직이지 않았다).

### 비전의 결여

인비지블웹닷컴은 신시내티에 본거지를 둔 민간업체인 인

텔리시크(Intelliseek)가 운영한다. 인텔리시크는 또한 데스크탑 검색 도구인 BullsEye2(무료)와 BullsEye Pro(\$149)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은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인비지블웹닷컴의 평범한 성능에 비추어 짐작컨대 이들은 데스크탑 제품들에 그들이 가진 에너지를 불균형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할당하고 있는 듯 싶으며 그것이 인비지블웹닷컴에는 손해를 주고 있다. 인텔리시크는, 검색자들을 종래의 검색 엔진들에 의해 종종 무시되고 있는 웹상의 콘텐츠에 안내한다는 인비지블웹닷컴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인 디렉트 서치(gwis2.circ.gwu.edu/~gprice/direct.htm)의 개발자인 게리 프라이스(Gary Price)에게 한 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디렉트 서치는 인비지블웹닷컴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사이트이나 훨씬 더 주제 중심적인데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디렉트 서치는 저자의 북마크에 들어있는데 이유는 저자가 좋아하는 (기존의) 검색 도구들에 대한 훌륭한 추가물이기 때문이다. 인비지블웹닷컴의 경우는 북마크에 수록시키지 않았는데 이유는 그것은 단순히 저자가 좋아하는 검색 도구들에 대한 대응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비지블웹닷컴에 있는 목록 중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Yahoo!와 LookSmart 또는 Google과 Northern Light와 같은 사이트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디렉트 서치에 있는 목록들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 경우에는 단지 검색 인터페이스를 가진 모든 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콘텐츠에 대한 많은 선택 링크 목록들이 있다.

그러나 저자는 몇 개월 안에 인비지블웹닷컴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다. 웹의 '보이지 않는' 콘텐츠에 마구를 단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발상이고 인비지블웹닷컴이 옳은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는 잠재력을 지닌다. 인텔리시크는 그들의 노력을 좀 더 집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비지블웹닷컴을 다른 일반 디렉토리들과 더 잘 구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인비지블웹닷컴(그리고 그와 경쟁하고자 하는 어떤 사이트라도)에 대한 목표는 적어도 빠른 시간 안에 기초가 튼튼한 대규모 검색엔진들에 대한 대체물이 아니라 기존의 검색 도구들에 대한 완벽한 추가물이 되어야만 한다.

현재에는 보이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웹 콘텐츠를 검색함에 있어서 인비지블웹닷컴을 사용함으로써 Yahoo!, LookSmart, Google과 같은 사이트들을 능가하는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